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江原日報

2024 01 15 ()

04



원주~서울 강남 40분대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식이 지난 12일 원주시 지정면 서원주역 대합실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송기헌·박정하 국회의원,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양인동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관련기사 1·11면 신세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1 15 ()

11



경포고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경포고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이 최근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에서 김남식 신임회장, 최승순 도의원을 비롯한 지역 고교총동문회장단, 동문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 01 14 ()

江原日報

“지역 사회 안전 수호하자”...춘천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김용만 등 7명의 신임 대장 취임



춘천소방서(서장:이동학)는 지난 12일 춘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춘천소방서 제공

춘천소방서는 지난 12일 춘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허영·노용호 국회의원과 박기영·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정재예 춘천시의원 등 내빈과 춘천시 의용소방대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취임식을 통해 김용만 남면남성의용소방대장, 서용석 사북전담의용소방대장, 이선희 사북여성의용소방대장, 지미선 북산여성의용소방대장, 최순미 남산여성의용소방대장, 홍승진 신북남성의용소방대장, 홍창현 서면남성의용소방대장이 취임했다.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의용소방대장으로 활동하며 소방 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김상범, 남궁찬, 박금순, 이승찬, 전철복, 주영아 전임 대장에게 강원자치도지사 공로패가 전수됐다.

박기영 강원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주실 신임 의용소방대장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동학 춘천소방서장은 “명예롭게 이임하는 의용소방대장단이 재임 기간 이뤄낸 공로에 감사드리다”며 “새롭게 취임한 의용소방대장단들 또한 춘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4 01 14 ()

江原日報

[포토뉴스]강릉불교사암연합회 신년하례 법회



강릉불교사암연합회 신년하례 법회가 13일 월정사 강릉포교당 관음사(주지:유엄 스님) 금천관에서 강릉불교사암연합회장 설암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포교국장 문종 스님, 조계종 제4교구장 퇴우정님 스님, 태고종 강원교구 종무원장 성인 스님, 천태종 삼태사 주지 해석 스님, 이길상 강릉불교신도연합회장, 전경식 관음사 신도회장, 권성동 국회의원, 김홍규 강릉시장, 심오섭·박호균 도의원과 불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엄 관 주지스님의 취임법회와 함께 봉행됐다. 강릉=정익기기자

강릉불교사암연합회 신년하례 법회가 지난 13일 월정사 강릉포교당 관음사(주지:유엄 스님) 금천관에서 강릉불교사암연합회장 설암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포교국장 문종 스님, 조계종 제4교구장 퇴우정님 스님, 태고종 강원교구 종무원장 성인 스님, 천태종 삼태사 주지 해석 스님, 이길상 강릉불교신도연합회장, 전경식 관음사 신도회장, 권성동 국회의원, 김홍규 강릉시장, 심오섭·박호균 도의원과 불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엄 관 주지스님의 취임법회와 함께 봉행됐다. 강릉=정익기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1 15 ()

16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15일 오후 2시 속초시속

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2024 시민이 하나되는 미래행복동행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준비는 끝났다... '2024강원' 입장권 32만장 돌파

2024 01 15 ()

01

GANGWON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D-4

도, 오늘부터 종합상황실 가동

17일 IOC위원장 선수촌 점검

19일 강릉·평창서 이원 개막식

강원도의 겨울을 다시한번 뜨겁게 달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2024강원대회)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9일 오후 8시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돔에서 이원으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이번 대회는 경기종목별 입장권 예매가 32만장을 훌쩍 넘기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조성된 최신 경기장 시설은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를 외치는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장으로 변신할 준비를 마치고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다.

최상의 숙박시설과 의료지원, 위생 시스템을 갖춘 선수촌 개촌은 15일 강릉원주대에 이어 18일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79개국 1900여명의 선수들을 맞이하며 대회 서막을 알린다.

폭설과 혹한에 대비한 막바지 안전 점검도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2024강원대

회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 도청 올림픽지원과 중심으로 운영했던 기존 현장점검반을 30명 규모로 확대 개편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가 행정지원 본부장을 맡고 윤승기 문화체육관광장이 종합상황실을 총괄한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장은 17일 강릉과 정선에 배치된 대회 선수촌을 방문, 시설 운영상황과 편의시설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지난 12~13일 1박2일간 일정으로 2024강원대회 개최지인 횡성 웰리힐리파크리조트를 비롯 평창알펜시아, 정선 하이원리조트 소재 경기장과 선수촌을 찾아 준비상황을 총점검했다. 직접 슬로프를 타고 빙질을 살피고 관중센터, 야외임시화장실, 운영인력 식당 등 모든 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유 장관은 현장점검에서 K-컬처를 선보일 수 있는 문화올림픽을 강조하고 'K-댄싱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개막식을 제외한 전 경기 무료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은 지난해 11월 11일 예매를 시작한 이후 2개월만인 지난 11일 기준 32만장을 넘어서며 대회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박창현·이세훈·김덕형

▶인터뷰 7면 ·관련기사 2·3·17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일정

- 15일**
 - 강릉원주대 선수촌 개촌
- 16일**
 - 특별성화 투어(오전 10시, 횡성 장애인종합복지관)
 - 대회 정경회의(오후 3시, 신관 대회리식당)
- 17일**
 -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 강원대회 선수촌 투어(강릉 정선)
 - 특별성화투어(오후 1시, 정선 사북청소년종합센터)
- 18일**
 - 정선 하이원리조트 선수촌 개촌
 - 해외자매우도시 환영 만찬(오후 6시 30분, 강릉 세인트존스호텔)
- 19일**
 - ICE 강릉 페스티벌 한마당(오전 10시부터 강릉 하키센터 앞)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개회식(오후 8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및 평창돔)
- 20일**
 - SNOW평창 페스티벌 한마당(오전 10시, 평창 스키점프대 앞)
 - WILD 횡성 페스티벌 한마당(오전 10시부터 횡성 벨리힐리파크 앞)
 -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 공연(오후 3시, 강릉아트센터)
 - 본지 주관 2024강원대회 불업 행사 K-Dancing festival(오후 2시 20분, 강릉 일화거리)

'2024강원' 디지털 성화 미리보기 지난 11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씨마코호텔에서 열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간 간담회에서 양정웅 개회식 총감독과 오장환 총괄 프로듀서는 "지속가능성이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세계 최초로 디지털 성화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19일 개막하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 선보일 디지털 성화.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민일보

달라진 위상에 조직위·개최지 '긴장' 완벽올림픽 만전

2024 01 15 ()

03

잼버리 파행·엑스포 유치 실패

윤 정부 성공 개최 중요성 강조

오늘부터 종합상황실 본격 운영

내일 김 지사 주재 점검회의도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종합상황실을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또, 대회 개막을 3일 앞둔 오는 16일엔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2024강원 대회 점검회의가 도청에서 열린다.

강원도 입장에서 이번 청소년 올림픽은 의미심장하다. 당장 전북과 부산 시 등 자치단체가 주관했던 전북 잼버리대회와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로 귀결되면서 청소년대회의 위상이 달라졌다.

특히 이들 행사는 당초 자치단체가 주도하다 정부가 뒤늦게 뛰어들었던 만큼 실패에 따른 정부의 타격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동계청소년 올림픽은 당초 1900명 정도의 미래 꿈나무 행사로 준비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행기면서 행사의 의미나 비중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세계각국에서 참가한 미래세대들은 이번 대회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되는데 좋은 추억만 많이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숙박과 안전 등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 기 바란다"고 했다.

강원도와 조직위의 부담도 커졌다. 실제 최근까지도 개최지 시군에서는 "강원청소년올림픽이 전국체전 규모로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뒤늦게 행사준비에 나선 조직위와 자치단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은 틈틈이 강원도 개최현장을 둘러 종합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강원도는 도청 올림픽지원과 중심으로 운영했던 기존 종합상황실을 30명 규모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가 행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윤승기 문화체육관광장은 종합상황실을 총괄한다.

특히, 도는 조직위 종합운영센터(MOC), 개최도시 및 경찰, 소방 등 유

관기관 상황실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단, 강원특별자치도와 대회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2월 1일 폐막식까지 대회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진태 도사는 16일 최종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도관제자는 "청소년올림픽이 잘 마무리돼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선 국제행사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멘텀을 만들 것"이라며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현태·김덕형

江原日報

2024 01 15 ()

04

도교육청-화천군 교육발전특구 지정 힘 모은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과 화천군(군수: 최문순)은 지난 12일 화천군청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화천군은 지난 12일 화천군청 회의실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마련 △교육 발전 전략 수립 △지역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화천군은 '완성형 돌봄시스템 구축 및 외국어 특화도시 화천'을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비전으로 제시했다.

지난 10일 춘천시와 협약을 가졌던 도교육청은 16일 오후 4시 원주시청

에서 원주시와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최문순 군수는 "화천군은 육아, 교육비, 장래 걱정이 없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아이 기르기 좋은 강원의 화천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가장 잘 실천하는 지역이 화천"이라며 "화천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완성형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어 특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휘기자 yulnyo@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1 15 ()

04

화천산천어축제 누적 관광객 50만명 돌파 '흥행가도'

숙박 혜택·산타 방문 인기 한몫
군 "안전 최우선·편의 확대 최선"

'2024얼음나라화천산천어축제'가 개막 8일 만에 누적 관광객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순항하고 있다.

축제 주관기관인 나라는 지난 12일 까지 누적 관광객 46만 256명을 기록, 두번째 주말인 13일 5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주말 새벽부터 화천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마다 차량의 행렬이 이어지기 시작해 얼음 낚시터 입장 시간인 오전 8시30분에는 축제장은 긴 대기행렬이 이어졌다. 다소 쌀쌀한 날씨임에도 드넓은 얼음판은 이내 수많은 강태공으로 채워졌으며 얼마되지

않아 산천어를 낚아 올리는 강태공들의 환호성으로 시끌벅적해졌다. 특히 이날 축제의 얼음축구장에서는 2024 산천어축제 전국 얼음축구대회도 개막해 35개팀이 불꽃튀는 접전에 들어갔다.

나라는 주말 관광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얼음 낚시터 중 얼음두께 25cm 이상인 지역에는 추가로 얼음구멍을 뚫었다. 현재 축제장 얼음 낚시터의 얼음판은 25~26cm 두께를 형성하고 있다. 나라는 또한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축제장 내 주요 순환로에 전기 카트와 서를 다수 배치했으며 낚시터에는 낚시 가이드를 배치해 축제에 처음 온 관광객들에게 산천어 낚시 노하우를 알려줬다.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 숙박 관광객에게 무료 파크골프 라운딩, 혹은

밤낚시와 평일 얼음낚시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 숙박 관광객도 크게 늘어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실제로 축제를 개막한 뒤 700여 명의 숙박 관광객이 무료로 파크골프를 즐겼으며 밤낚시를 즐긴 2530명의 관광객 중 절반을 넘는 1619명이 숙박 후 무료로 낚시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화천을 찾은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의 리얼 산타와 요정 엘프도 흥행에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관광객 불편은 줄이고, 편의는 확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익호

▶ 관련기사 15면

강원도민일보

2024 01 15 ()

09

춘천 학곡지구 공공기관 유치 물꼬 틀까

4~5곳 타진, 이르면 3월 윤곽
시, 상반기 내 이전 협약 추진
초등학교 복합시설 조성 속도

춘천시가 공공기관 4~5곳과 학곡지구로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어 답보상태에 놓인 학곡지구 공공기관 유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춘천시는 공공기관 4~5곳과 학곡지구 이전 가능성 등을 논의하고 있

다. 현재 협의 중인 공공기관 모두 학곡지구 이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각 기관별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하반기 최종 확정된다. 춘천시는 이르면 3월쯤 이번 계획이 도출, 상반기 안에 공공기관 이전 협약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학곡지구 조성사업의 마지막 절차다. 학곡지구는 동내면 학곡리 산 12일원에 짓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규모는 32만여㎡다.

춘천시는 이 곳에 공동주택 2700여세대, 단독주택, 준주거시설, 상업

시설을 비롯해 공공기관과 초등학교도 유치할 계획이다.

2021년 부지조성을 마무리 했지만 공공기관 유치와 학교 조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준공고시, SPC 청산 등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높은 단가, 위치적 요인 등으로 유치 논의가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는 없는 상황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쪽에서 먼저 입주의사를 타진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공공

기관 이전을 확정된 후 SPC 청산까지 올해 안에 끝내는 게 목표"라고 했다.

초등학교 유치도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춘천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말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학곡지구 초교를 짓는 데에 합의, 복합시설로 학교를 조성하기로 했다.

학교 복합시설은 교육공간이지만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또 다른 춘천시 관계자는 "공고가 나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1 15 ()

12

강원관광대 폐교 가닥 지역사회 의견 수렴

내일 폐지 관련 공청회 개최
대학측 “위기 타개책 못 찾아”
비대위 “요식 행위 시민 기만”

속보=태백 유일의 대학인 강원관광대가 폐교(본지 2023년 12월 29일자 4면 등) 쪽으로 내부 가닥을 잡고 지역사회 의견수렴에 나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강원관광대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강원관광대는 최근 ‘강원관광대학교 폐지에 대한 태백시·태백시의회·태백

시민단체 공청회 개최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동안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을 통해 폐교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지만, 강원관광대에서 폐지를 직접 거론한 것은 거의 최초다. 학교법인 본진학원·강원관광대가 주최·주관하는 공청회는 16일 오전 10시 강원관광대 웅비관 1층 요양보호사교육장에서 열린다.

강원관광대는 공문을 통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학생 모집이 극도로 어려워져, 학생 부족으로 인해 재정결손이 발생해 교직원 임금제불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위기를 타개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으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누구도 대학 위기 타개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학생이 모집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을 계속 유지할 경우 재정결손의 누적,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며 “대학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대학의 사정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음(중지)’을 알려 드립시다’라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에 이어 최근 내부 전산망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간 호과 재학생 전원에게 충북 음성군 소재 ‘강동대학교’로의 편입 추진을 통

보해 찬·반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그동안 태백 경제를 위해 대학이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온 지역사회가 이번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대섭 비대위 위원장은 “공청회 공문을 최소한에 게만 발송했는데, 이 행위는 시민들을 기만하고 법률과 시행령을 담은 교육부의 지시에 면책하려는 요식행위로 판단되는 만큼 공청회 개최를 반대한다”며 “장성광업소 폐광에 이은 강원관광대 폐교로 희망마저 사라진 암울한 태백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도 대학 정상화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김우열

강원도민일보

2024 01 15 ()

04

강원랜드·정선 “폐광지역 성장 카지노 규제 해소를”

정선 방문 유인촌 장관에 건의
“객장면적·테이블수 확대”요구
유 장관 긍정적 검토 입장 표명

강원랜드와 정선군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정선하이원리조트 스키장을 방문한 유인촌 문제 부장관에게 카지노 규제 해소를 건의해

주목되고 있다. 유인촌 문제 부장관은 지난 13일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알파인 경기가 열리는 정선 하이원 스키장을 방문해 스키장 주요 시설과 선수촌 등 현장을 점검했다.

유 장관은 이어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이철규 국회의원,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박상수 삼척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등 폐광지역 시장·군수와 강원지역 현안

과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직무대행은 강원랜드를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폐광지역 관광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카지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 직무대행은 “해외 원정, 불법 카지노 급증은 지역과 상생하는 강원랜드의 매출 회복에 둔화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2024년을 강원랜드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성장을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이달 안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모아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 협의차 라오스에서 귀국하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간 최승준 군수는 “매출충당제로 인해 도박중독 유

병율 증가는 물론 불법 도박산업 증가, 원정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증가, 이로 인한 강원랜드 경쟁력 약화에 따른 폐광지역 재 공동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규제보다 건전한 게임문화육성을 위한 객장면적과 테이블수 확대 등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카지노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주현

강원도민일보

2024 01 15 ()

/ 19

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 과제로

-지역 발전 동력 역할 할 영업 기반 마련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과 이에 따른 기업 유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매개입니다. 자치도 특례확대를 통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기업이 도내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편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창업은 젊은 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 공동화를 막고 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일인 만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원지역의 창업 환경은 현재로서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최근 공개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 창업 기업 수'를 보면 강원지역 창업기업은 지난해 7월까지 3000여개 이상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8월 2856개로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3012개)에는 지난해 동월보다 15.8%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해 창업 심리가 위

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올해 지원 규모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 지원 사업 통합공고'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3조7121억원으로 전년대비 51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창업 지원 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였던 2022년 예산보다 453억원이 더 큰 규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2024년 창업 지원사업 현황은 7개 기관, 16개 사업으로 총 52억원입니다. 올해 강원 지역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2.31% 확대됐으나, 지원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인구와 경제 규모로 볼 때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창업 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건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 사업을 알차게 운영해 내실을 기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세제 혜택 등 강원만의 장점을 발굴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한편으로 정주기반 조성과 교통망 확충 등 넓은 의미에서의 영업 기반 마련도 병행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15 ()

/ 19

강원관광대 폐교 위기 사면초가 우려

-태백시 대안도, 대체산업도 불투명해 더 큰 난관

태백에 소재한 강원관광대학교 폐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관광대와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내일(1월 16일) 강원관광대학교 폐지에 대한 태백시·태백시의회·태백시민단체 공청회를 학내에서 개최하기로 하면서 구체화되는 양상입니다. 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타 대학 편입안을 진행하는 등 폐교 가능성이 점쳐지긴 했으나 대학측에서 직접 폐교를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태백지역 사회단체 등으로 결성된 강원관광대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측은 교육부의 지시에 대해 대학이 면책하려는 요식행위로 판단하면서 공청회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지역경제 차원에서 대학 존치를 강렬하게 열망해온 비대위측은 “장성광업소 폐광에 이은 강원관광대의 폐교로 희망마저 사라진 암울한 태백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도 대학정상화를 위해 함께 해달라”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대학측은 재정 결손인 상태에서 계속 운영 유지할 경우 누적 규모가 커지면서 재학 중인 학생 학습권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불가피함을 알렸습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학생모집이 극도로 어려워져 학생 부족으로 인해 재정 결손이 발생해 교직원 임금

체불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했으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누구도 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재학생들이 피해보지 않으려면 폐교 조치가 유일한 방안인 것으로 사정을 피력하고 있기에 공청회를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워 협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태백과 인접한 동해시 관내 사립대인 한중대학교의 경우 결국 지역에서 폐교를 막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 총장의 비리 등으로 인해 2018년 학교법인 해산으로 폐교된 한중대의 경우 교직원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막대한 국비가 투입된 전례가 있습니다. 22만여㎡ 부지와 건물이 7년째 방치되면서 절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범지대가 돼 골치를 앓았을 뿐만 아니라 활용 방안을 찾고 있으나 지금까지 답보상태입니다. 22년엔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해 국가 공모에 도전했으나 실패해 녹록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강원관광대가 폐교될 경우 지역경제 악영향이 만만치 않은 것은 물론 대체산업의 기반마저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면초가에 놓일 것을 우려합니다. 그렇다고 대학 유지를 위한 막대한 자원 및 효과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속전속결로 나오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기에 가능성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모색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 01 15 ()

/ 19

어린이집 70곳 폐원, 저출산 대책 전면 쇄신해야

저출산·고령화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는 문제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산 위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장래인구 모든 분야에서 OECD 38개국 중 1위 또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의 '2022~2072 장래 인구추계'와 유엔(UN) 세계 인구 전망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출산율, 기대수명, 인구성장률 등 인구 관련 전 부문에서 1등과 꼴등을 번갈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0.78명)을 시작으로 2072년(1.08명)까지 꾸준히 OECD 38개국 중 최하위를 지킬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 1.0명을 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2022년 기준으로 71.1%로 38개국 중 가장 높지만, 2072년에는 45.8%로 쪼그라든다. 38개국 중 한국만 50%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 내용을 보면 더욱 암울하다. 2033년 인구 5,00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72년엔 3,622만명으로 쪼그라든다. 1970년대 한 해 100만명을 웃돌던 출생아가 2002년에 40만명대, 2017년 30만명대, 2020년 이후엔 20만명대로 급감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저출산 쓰나미가 덮치고 있다. 즉, 저출생 여파로 강원지역 영유아 인구수가 급감하면서 어린이집이 빠르게 사라지

고 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말 도내 전체 어린이집 수는 835개로 연초 905개에서 70곳이 줄었다. 문을 닫은 곳 중 상당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집 근처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이었다. 실제 지난해 폐원한 70곳 중 가정 어린이집(33곳)과 민간 어린이집(23곳)이 56개소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이들 어린이집은 최저 원아 수를 채우지 못해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이 끊기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 2023년 말 기준 835개

규모 작은 어린이집 최저 원아 수 못 채워

일자리, 교육, 부동산, 복지 등 재설계 시급

이 때문에 2013년 1,265곳에 달했던 도내 어린이집은 10년 만에 430개가 감소했다. 우리는 이미 저출생 원인을 알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

고,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이며, 양극화와 대학 서열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사교육 때문에 허리가 휘다. 모두가 서울로만 몰리는 수도권 집중이 도를 넘자 청년들이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비혼), 늦게 하고(만혼),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무자녀) 경향이 '뉴 노멀'로 자리 잡았다. 일자리, 부동산, 교육, 복지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출생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합계출산율이 1.2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일본은 최근 2025년부터 세 자녀 이상인 가족의 자녀에게 대학 무상교육을 하기로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아니면 출산율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江原日報

2024 01 15 ()

/ 19

D-4 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차질 없어야 한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청소년올림픽)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횡성군 등 4개 지역에서 19일부터 2월1일까지 14일 동안 열린다. 성공 개최를 위한 대회 마지막 점검이 한창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주개최지인 강릉과 평창을 찾아 조직위 관계자들을 격려한 데 이어 13일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선 하이원리조트 하이원스키장과 선수촌을 돌아봤다. 유 장관은 안전 올림픽을 강조하면서도 “선수와 관중이 ‘강원 2024’를 K-컬처와 함께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올림픽은 종목별 개인 메달을 시상하지만 국가별 집계 등을 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주인공인 만큼 치열한 경쟁보다는 다양한 즐길 거리, 볼거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경쟁이 아닌 축제로 즐겨야 한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조직위는 강릉에 조성된 메타버스 체험관 등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마련하고 있다. 대회 기간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와 올림픽기념관, 강릉하키센터, 정선 하이원 스키하우스, 횡성 웰리힐리파크에는 스포츠와 문화공연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인 ‘페스티벌 사이트’가 운영된다. 야외

아이스링크에서 DJ스케이트 나이트 이벤트가 진행돼 공연, 체험 행사 등을 즐길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세계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를 주제로 공존·화합의 장을 펼치는 지구촌 대축제다. 향후 대한민국은 물론 지역 발전과도 연계돼 있는 국제 행사다. 특히 도는 청소년올림픽을 통해 세계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인류 평화의 여정을 이어가는 성지로 확고한 위상을 세워야 한다. 성공 개최를 위해 우리 모두 평창동계올림픽의 열정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무사히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한파, 폭설은 물론 위생, 방역 등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추운 날씨에 부는 대관령의 칼바람, 강릉의 바닷바람은 외국 청소년들에게 한파로 느껴질 수 있다. 폭설이 잦은 동해안의 눈폭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조직위와 지자체에서는 청결을 위해 선수촌 전 객실에 딥 클리닝을 실시했다. 또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병과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13개 의무실에 의료인력 258명을 배치기로 했다. 긴급 치료를 위한 36개의 국가격리병상을 강원대병원,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에 확보했다. 지난해 여름 잼버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점검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다.